

고전 속에서 얻는 삶의 지혜

한글세대에 맞춰 깔끔한 번역으로 대중화에 기여

눈앞이 흥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진다. 최근 출판가에 부는 우리 고전출간의 바람은, 비유하자면 조심조심 내딛는 발걸음같은 것이다. 출판사에는 기획이 가져올 부담을 줄여주고, 독자들의 입장에서 요즘 책의 속도감이 가져오는 피로를 덜어준다.

짧은 글 속에 날카로운 통찰

이제까지 고전은 한문으로 씌어져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에 갇혀 있었다. 말랑말랑한 읽을거리가 된 것은 '선집' 형태의 책들이 나온 최근의 일이다. 근래 출간된 동양고전은 《고전읽기의 즐거움》(강희명 외, 솔), 《한글 설원》(유향, 동문선), 《한국고전시가선》(임형택·고미숙, 창작과비평사), 《선시감상사전》(석지현 지음, 민족사), 《한시를 읽는 즐거움》(정진권, 학지사),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이기형, 창공사) 등이다. 이 책들은 모두 중국과 한국 고전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와 시 가운데서 내용을 추렸다. 그래서 "그 뜻을 심하게 따지려 하지 않고(不求甚解)" 눈 가는대로 읽다가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을 만나면 그뿐이다.

특히 <나랏말싸미>시리즈를 시작으로 국학 관련서 출간에 비중을 두어온 솔출판사는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그동안 펴낸 《한시미학산책》, 《마음을 비우는 지혜》(이상 정민), 《숨어서는 즐거움》(허균),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이덕무), 《아들딸에게 주는 삶의 지혜》(김종섭 엮음) 등은 깔끔한 편집디자인과 간결한 번역으로 고전을 대중화하는데 성공했다.

《고전읽기의 즐거움》은 '민족문화추진회보'에 86년부터 연재했던 '고전의 향기'를 묶은 책. "고전에 대한 문외한들이 밖에서 우리 고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그만 창문" 역할을 자임하는 만큼 쉬운 우리말 번역과 부담없는 길이가 특징이다. 도둑 아들이 살아날 방법을 스스로 얻도록 가르치는 아버 도둑, 많이 먹어 죽은 소 이야기, 과음으로 인한 실수를 술직담백하게 털어놓은 이야기 등 두세 쪽을 넘지 않는 짧은 글 안에 인생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번뜩인다.

《한글 설원》 역시 중국의 여러 전적에서

눈 앞이 희미할 때 내딛는 발걸음처럼 최근 고전 출간이 조심스럽게 늘고 있다. 짧은 글 속에 번득이는 인생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은 요즘같이 어수선한 때에 깊은 지혜를 들려준다.

최근에 나온 우리 고전은 깔끔한 편집과 간결한 번역이 특징이다.



뽑아낸 짧은 이야기 846편을 모은 것. 중국 전한 때의 경학자 유향(B.C. 77~6)이 엮었다. 군도(君道: 임금의 도리), 신술(臣術: 신하의 도리), 존현(尊賢: 어진이를 존중함), 반질(反質: 본질로 되돌아가) 등 2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담았다. 제목이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시경》의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러주소서"라는 말은 송나라 왕의 일화에서 연유했다.

송나라에 큰 수재가 발생하여 노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위로하자, 송나라의 왕은 "과인이 똑똑히 못한 데다가 재계(齋戒)도 근엄히 하지 못하였으며, 읍봉(邑封)도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였고, 사람을 부림에도 때를 맞추지 못하여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듯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어느 군자는, "송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라며 "하나라 걸왕, 은나라 주왕은 허물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 망한 것이다. 무릇 허물이 있을 때 이를 고치면 이는 곧 허물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우선 발뻠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요즘 사람들이 새겨 들을 만한 대목이다.

《한글 설원》은 97년 초 발간한 <완역상주한전대계(完譯詳註 漢典大系)>시리즈의 《설원》을 한글 보급판으로 만든 것인데, 동문선은 《안자춘추(晏子春秋)》 《수신기(搜神記)》 《한시외전(韓詩外傳)》 《잠부론(潛夫論)》 《세

설신어(世說新語)》 《전국책(戰國策)》 등도 <한글고전총서>로 펴낼 계획이다.

창공사에서 펴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이기형)는 중국의 명언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몄다. 어진 삶에 대한 이야기(仁),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義),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智), 예의와 믿음을 주는 이야기 등 4부로 구성. 귀에 익은 듯하지만 명확히 뜻을 알 수 없었던 글귀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한때 정계에서 유행어가 됐던 '토사구팽', 배움의 자세를 설명한 '이는 것은 안다 해야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 한다', '사색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 등은 단순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절제된 표현으로 삶의 다양하고 풍부한 단면을 묘사한 한시와 고전시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신라의 향가, 고려의 속요, 조선조의 시조와 가사 등 1500년에 걸친 고전시가를 한자리에 모은 《한국고전시가집》은 서민의 애환이 생생하고 역사현실에 민감하게 대응한 시가들을 골랐다. 현대의 노래 속에 현대인의 삶이 녹아 있듯 고전시가에도 당시 사람들의 꿈과 동경, 그리고 비애가 들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 고전의 이해폭 좁힐 수도

한국편과 중국·일본편으로 나눠 적지 않

은 편수의 한시를 담은 《선시감상사전》과 역자의 감상인 평설을 붙인 《한시를 읽는 즐거움》은 한시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편에만 승려 및 시인 107명의 시 997편이 실린 《선시감상사전》은 관념의 바다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순간적인 깨달음을 시로 옮겨놓았다.

"그대의 본성을 알고 싶거든/잠시동안 생각을 멈추게 하라/마음을 보되 그 본체가 없는 줄 알면/바야흐로 고향에 이른 것이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선(禪)의 세계를 간결한 시로 표현했다. '선시'라는 주제로 묶은 이 책과 달리 《한시를 읽는 즐거움》은 《동문선》, 《대동시선》 등에서 뽑은 눈에 익은 시들이다. 애절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시, 군주에 대한 충성, 늙는 서러움 등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겪는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감상을 담았다.

이 고전들은 한결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일화", "세상이 어수선할 때 떠올리는 옛 글귀"라는 말로 세상사에 시들해진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출판계에 부쩍 우리 고전 출간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빠른협약으로 저작권이 강화되고 환율인상과 불황 때문에 외국서적 번역출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됐던 지난 한해 동안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가졌던 관심이 추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비싼 로열티를 지불한 번역본이 출판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판단도 우리 고전을 통한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하게 했다.

GNP 1만달러 시대를 맞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낳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들린다. 일관된 관점에서 고른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짜깁기식의 이야기 모음으로 오히려 우리 고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전문가의 지나친 의역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못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솔출판사의 함정임 편집장은 "고전 출간이 유행이 되기보다 시간과 공을 들여 출판의 전문화 및 심화의 한 단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 이현주 기자